

# 컴퓨터는 道具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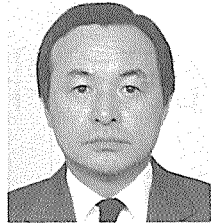
「우리會社는 MIS(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 經營情報시스템)가 완성되었다」 또는 「언제 MIS가 완성 되겠는가?」등은 컴퓨터의 도입과 활용이 활성화되면서 많이 듣고 있는 말이다. 이와같은 컴퓨터의 활용과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살펴보는것도 흥미가 있다.

MIS란 용어는 지난 1960년대 후반에 컴퓨터 제조회사가 당시의 大型컴퓨터 판매촉진의 방편으로 널리 사용하였으며 경영학자들은 1970년대말에는 일상업무에 컴퓨터 단말장비를 사용하는 下級職員과 의사결정을 하는 最高經營層만 남고 중간관리자는 없어질 것이라고 하였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MIS」는 「MYTH」였다고 회상하고 있다. 그런데 각 분야의 운용업무가 컴퓨터로 처리되면 자료가 축적되어 점차적으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기업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그렇게 되지않고 있다. 더우기 의사결정에는 기업외의 公開 또는 非公開 情報도 필요하며 기업의 필요한 정보의 체계적인 파악도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80년대에 와서는 DSS(Decision Support System : 意思決定支援시스템)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DSS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AI(Artificial Intelligence : 人工

문성열  
대한항공 이사



知能) 또는 Expert System이라는 용어도 쓰이고 있다. 이것은 醫學이나 法學 등 전문분야의 지식과 논리를 체계화하여 전문가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이러한 技法은 일반기업에도 적용되리라고 한다. 이외에도 개인용 컴퓨터와 사무기기의 발전으로 인한 OA(Office Automation : 사무자동화) 및 로보트로 인한 FA(Factory Automation : 공장자동화)등 많은 용어가 범람하고 있다.

기업의 정보자원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컴퓨터와 통신에 관한 기술을 IT(Information Technology)라고 한다. IT는 종래 後方의 支援機構의 개념에서 경쟁의 최전선의 무기로서 인식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구로 사용방법에 따라 성과가 달라진다. 이런 관점에서 컴퓨터의 활용지식은 관리자의 기본요건 중의 하나로 추가된 것이다.